

『훈민정음』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접근*

이상규**

|| 차례 ||

- I. 서론
- II. 풍토설과 성운학
- III. 결 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서 밝힌 “사방의 풍토가 각기 구별되어 성기가 또한 이에 따라서 다르나니, 대개 외국의 말에 그 소리는 있어도 이 소리를 적을 만한 문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통용하게 되나니, 이 형편은 마치 속담에 이른바 예조(모난 자루)와 원조(둥근 구멍)가 서로 합할 수 없다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柄鑿之鉏鋸也。)”라는 말이 단순히 『황극경세서』의 내용의 역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풍토설에 기반하여 1) 자국 문자 창제의 당위성, 2) 예의에서 해례로 옮겨가는 동안 운도의 체계적 변화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3) 방언과 이음에 대한 인식으로 아동어와의 차이, 곧 세대 간의 언어차이와 지역 간의 언어차이를 인식하여 다양한 음소를 제정할 있었지만 28자 제한적 음소 문자로 완결된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주제어 : 훈민정음, 황극경세서, 풍토설, 흥무정운역훈, 인문지리.

* 이 글은 2014년 한민족언어학회, 하계전국학술대회 발제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다.

이 글은 2013년도 경북대학교(KNU)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물임.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I. 서론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중국의 성리학이나 운학 등의 언어학적 기반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전제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28자의 제한적 문자를 가지고 합자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라는 “음운으로는 청탁의 능변함과 악가로는 울려를 고르게 함에 있어서도 없고 통달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비록 바람소리 학이 울음 개의 짚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¹⁾라고 한글 표음성의 우수함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한자음에 대한 중국과 조선이나 또한 조선 내부의 지리적인 공간 차이와 사대부와 하층민 혹은 노년층과 아이들의 언어적 변이를 어떻게 통일적으로 표기하려고 했을까? 그 가운데 특히 지리적 변이를 통일하고자 했던 의지를 『훈민정음』 해례 <합자해>의 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언과 이어俚語가 제각기 다른데, 소리는 있고 글자가 없어 통하기 어렵더라. 하루 아침에 만드심은 신의 숨씨와 같으니, 우리나라에 영원토록 어둠을 없앴구나(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 一朝制作侷神功 大東千古開朦朧)

결국 언어의 지리적 차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를 절충하였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지리적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은 훈민정음 창제에서부터

1) 정초의 『칠언약』 서문에는 “학 울음소리, 바람소리, 닭 울음 소리, 개 짚는 소리, 천둥 번개가 우지근 똑닥하고 모기나 등애가 귀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모두 다 옮겨 적을 만하거늘(雖鶴唳風聲, 鷄鳴狗吠, 雷霆經天 蚊虻通耳, 皆可譯也.)”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등의 운서 제작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우리와 꼭 같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지리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형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훈민정음의 체계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며 이러한 관점을 논증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1. 세종의 인문지리적 인식

조선을 개국한 태조로부터 태종에 이은 4대 세종은 조선의 왕도 기반을 안정적으로 닦은 뛰어난 왕이었다. 일찍 동아시아의 자연철학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음양오행 사상의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성리학의 학문체계를 건설하게 익힌 성군이였다. 우주의 삼라만상의 생성 원리를 융합된 역학사상으로 해석하는 자연철학을 기조로 하였다. 중국 고대 복희와 문왕의 팔괘와 하도와 낙서에 연원을 둔 송나라 성리학이 역학과 성수학, 율려, 천문학, 성운학 등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기술하는 동아시아의 학문적 연원과 기반을 세종은 경연과 집현전의 탁월한 학자들과 함께 훌륭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의 왕도 정치 기반을 천도 사상과 예악을 존중하는 법치국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조선의 건국 기반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운학의 정교한 연구와 훈민정음 창제, 고제의 연구, 법령정비, 지지 작성, 율려 정비, 전제 정비, 측우기를 비롯한 정전 관리를 위한 천체 천문학 연구 등 실로 자주적 조선의 학문적 기반을 건설하게 닦아 왔던 것이다.

특히 세종의 외교적 전략은 매우 뛰어났다. 조선의 북관을 침탈했던 여진 세력을 물리친 것은 당시 명나라가 요동 도사를 세우고 만주 지역의

경락을 시도한 것과 맞물려 있다. 육진 중성 지역에 산거하던 여진 세력을 명나라 요동 도사로 송출함으로써 명나라의 천제는 조선의 세종을 천자의 지위로 인정하게 된다.²⁾ 세종 26(1444)년 3월 명 나라로부터 천자를 상징하는 오조육복 3습을 특별히 하사받은 후에 왕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내용은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예전에 사조용의를 입었었는데, 뒤에 듣자니 중국에서는 친왕이 오조용을 입는다가 나도 또한 입고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 뒤에 황제가 오조용복을 하사하셨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사조용을 입게 하면 내게도 혐의로울 것이 없고 중국의 법제에도 잘못됨이 없겠다.”하매,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하 나이다.”하니, 그대로 따랐다.(又曰 昔予服四爪龍衣, 後聞中朝親王服五爪龍, 予亦服之, 以待天使, 其後, 帝賜五爪龍服. 今令世子服四爪龍, 則於我無嫌, 於朝廷法制, 亦無妨焉. 僉曰 允當. 從之.),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1449)년)

세조 2(1456)년의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 26(1443)년까지는 사조용의(四爪龍衣)를 입다가 세종 26(1443)년 3월 26일 명나라로부터 오조용복(五爪龍服)을 하사받아 오조용의(五爪龍衣)로 바뀌었다는 세종의 뛰어난 국제 경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가 가진 자주주의의 일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는 동문동계라는 중화사상을 훈민정음 창제라는 자주적 의지로 연결시켜낼 수 있었던 힘이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세종 25(1443)년 동아시아 자연철학인 성리학파 성운학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주체적 자국의 자주적인 문자를 만들

2) 아이신교로 올라희춘(愛新覺羅 烏拉熙春), 이상규·다키구치게이코 역주, 『명나라 시대 여진인』, 경진출판사, 2014.

여건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신흥 명나라의 어문 정책 변화와 더불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자국 문자 제정의 전통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문자 제정을 통한 전 국민들의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세종의 국가 전략의 구현이 이루어낸 결과였다.

특히 세종의 외교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에 대한 관심 역시 역대 제왕 가운데 가장 앞섰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인문지리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검색창에 ‘지리지’라는 검색어로 왕조별 출현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태조(0)|정종(0)|태종(4)|세종(353)|문종(2)|단종(1)|세조(4)|예종(0)|성종(5)|연산군(0)|중종(2)|인종(0)|명종(0)|선조(1)|선조수정(0)|광해군일기(중초본)(0)|광해군일기(정초본)(0)|인조(0)|효종(0)|현종(0)|현종개수(0)|숙종(1)|숙종보궐정오(0)|경종(0)|경종수정(0)|영조(0)|정조(0)|순조(0)|헌종(0)|철종(0)|고종(0)|순종(0)|순종부록(0)

대부분의 왕들은 0~5회 미만의 출현 빈도에 비해 세종대왕은 무려 353회라는 기록 자체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세종대에 『세종지리지』를 간행을 위해 세종 7(1425)년에 “지리지 편찬을 위해 필요한 문적을 충주 사고에서 올려 보내게 하다.”(세종 28권, 7(1425)년)에 기사가 보인다. 그 결과는 세종 14(1432)년에 “맹사성·권진·윤희 등이 새로 찬수한 『팔도지리지』를 올린다”(세종 14(1432)년)의 기록이 보인다. 7년 만에 왕조 치국의 기반이 되는 지리지가 완성된 셈이다.

당시 새로 들어선 명나라 영락 조에서는 요동을 비롯한 만주지역의 전략을 위해 흑룡강 하구에 도사(都事)를 설립한 뒤 <노아간비석>을 설치하여 중국의 영역 확장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³⁾ 이에 세종 역시 만주 지역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침몰하는 여진과의 힘에 겨운 정벌과

화해를 모색하며 조선의 국경을 확정하였다. 조선 세종 때, 동북 방면의 야인여진을 제압하기 위해 두만강 하류 지역인 중성(鍾城), 온성(穩城), 회령(會寧), 경원(慶源), 경흥(慶興), 부령(富寧)에 육진을 개발하고 또 동북 방면의 육진은 북서 방면의 사군(四郡)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4군은 조선 세종 당시 서북 방면의 여진족을 막기 위해 압록강 상류에 설치한 국방상의 요지이다. 서북 방면에 대한 경략은 고려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세종대에 이르러 여진족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여연(閔延)·자성(慈城)·무창(茂昌)·우예(虞芮)의 4군이 설치되었다. 이리하여 압록강의 상류지역까지가 조선의 영토로 편입된 것이다. 후일 한때 4군이 철폐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압록강 선은 유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북방 개척은 농토의 확장과 아울러 천연의 요새를 국경선으로 삼으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이에 조선의 국토가 완성되었다.

4군 지역의 중요성은 과거장 정벌 이후 책임자였던 최윤덕이 이후 조정에서 우의정, 좌의정이면서도 여진족을 경계하기 위해 평안도 도절제사를 3년 동안 겸임한 것과, 1443년 4군 설치가 완성될 때까지 10년 중에, 조정에서 재상의 반열에 있던 60세를 넘긴 두 노장(최윤덕과 이천)이 7년간을 책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군 지역은 6진 지역과 더불어 세종대에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처럼 관방의 강화를 위해 여진과의 잦은 마찰과 화해를 통해 여진인들은 독자적인 여진문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들이 차지했던 지역의 지명들이 여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지리지』 <함길도 회령 도호부> 향을 살펴보자.

3) 아이신교로 올라희춘(愛新覺羅 烏拉熙春), 이상규·다키구치게이코 역주, 앞의 책.

“본래 고려(高麗)의 땅이었다. 속칭(俗稱) 오음회(吾音會)라 하는데, 호언(胡言)으로는 알목하(斡木河)이다. 【회(會)자를 취(取)하여서 부(府)의 이름으로 하였다.】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땅이 비어 있는 것을 틈타서 들어와 살았다. 세종 15년에 울적합(兀狄哈)이 맹가(猛哥)의 부자(父子)를 살해하여, 알목하(斡木河)에 추장(酋長)이 없어졌다. 세종 16년 봄에 드디어 석막(石幕)의 영북진(寧北鎭)을 백안수소(伯顏愁所)로 옮기고, 바로 알목하가 서쪽으로 동량 야인(東良野人)과 인접하고, 북쪽으로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에 해당하며, 또 알타리 유종(斡朶里遺種)이 살고 있다 하여, 특별히 벽성(壁城)을 설치하고서, 본진(本鎭)의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겸하여 관찰하게 하였다.”

‘회령’을 ‘오름회(吾音會)’라하고 오랑캐 언어로는 ‘알목하(斡木河)’라고 ‘백안(伯顏) 등의 지명이 여진 만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에서와⁴⁾ 『용비어천가』에 여진 몽골 지명과 인명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예가 있다.⁵⁾

2. 세종의 자주적 국가의식

결국 세종의 지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관방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문자와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화 사대도 중요하지만 조선의 풍토는 중국과 달라 자국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인식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을 강희맹은 신숙주의 <행장>에서

“임금께서 우리나라 음운이 화어와 비록 다르니 그 아, 설, 순, 치, 후, 칭,

4) 김주원,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여진어 만주통구스어』, 『알타이어학보』제14호, 2001.

5) 조규태, 『용비어천가』, 한국문화사, 2006.

탁, 고, 하가 한어와 마찬가지로 다 갖추어 있어야 하고 여러 나라가 제 나라 언어음을 나타낼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제 나라 말을 기록하고 있으나 단지 우리나라만 글자가 없다고 하셔서 언문 자모 28자를 만드시고(上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其牙舌唇齒喉清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列國皆有國音之文。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보한제집』 <신숙주 행장>)

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으로 세종의 인문지리적 인식이 곧 자주적 의식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이파(李坡)의 신숙주의 <묘지명>에도

“세종이 우리나라 음운이 화어와 비록 다르나 그 5음 청탁, 고히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르나 여러 나라가 모두 제나라의 글자가 있어서 국어를 표기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독(글자가) 없으니 임금이 언문 28자를 만드시고(世宗以本國音韻與華語雖殊。基五音清濁高下未嘗不與中國同。而列國皆有國字。以記國語。獨我國無之。御製諺文二十八字)”

라고 하였다. 이승소의 신숙주의 <비명>에도

“세종은 여러 나라가 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 문자가 없어 새로 28자모를 창제하였다.(世宗以諸國各製字。獨我國無之。御製字母二十八字)”라 하였다.⁶⁾

이에 대해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 서에

“사방의 풍토가 각기 구별되어 성기가 또한 이에 따라서 다르나니, 대개

6) 홍기문,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 1946 참조.

외국의 말에 그 소리는 있어도 이 소리를 적을 만한 문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통용하게 되나니, 이 형편은 마치 속담에 이른바 예착(모난 자루)과 원조(둥근 구멍)가 서로 합할 수 없다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⁸⁾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⁹⁾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柄鑿之鉏鋸也。)"

라고 하여 아주 적절한 비유로 자주적 국가로서 자국의 문자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가히 중화(華夏)에 모의(倣擬, 비교하여 견줄 만 함)되나 그러나 방언과 이어(俚語, 우리말)가 이와 더불어 서로 같지 아니 하니 여기서 글 배우는 이의 그 지취(旨趣, 글의 뜻을)가 깨닫기 어려움을

7) 예착(柄鑿): 『이소경』의 『초사집주』에<속리소 구별제8>에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로다. 나는 진실로 그것이 서로 어긋나서 들어맞지 않는 것을 알겠도다(圓鑿而方柄兮 吾固知其鉏鋸而難入)”라는 글에서 따온 표현이다. 병와 이형상의 『자학』 ‘방언’ 항에 ‘예착(柄鑿)’의 ‘예(柄)’는 구멍에 나무를 끼워넣는 것을 뜻하는데 송옥(宋玉)의 <구별(九辨)>에 “둥근 자루와 네모난 구멍이야, 나는 그것이 서로 어긋나 들어가기 어려움을 아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무릇 ‘예(柄)’는 본래 서로 들어가는 물건인데 오직 네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방(方)’과 ‘원(圓)’ 두 글자를 삭제하고 다만 ‘예(柄)’와 ‘착(鑿)’은 서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글자의 뜻도 통하지 않고 또한 문리도 어긋난다.”고 하였다.

8) 언어가 풍토에 따라 다른 점을 말한 대목이다. 『황극경세서』(『성리대전』 권8)에서 “音非 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이라는 내용이 『홍무정훈역훈』에도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못 하고 기도 또한 그 기에 따르는 바,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인지라. 이른바 사성과 칠음이 지방에 따라서 편의함을 달리하거늘(蓋四方風土不同。而氣亦從之。聲生於氣者也。故所謂四聲七音隨方而異宜。)”이라 하고 있다.

9) 『고금운회거요』의 류진옹(劉辰翁)의 서문에 “기는 천과 지의 모체이라 성과 기는 동시에 일어나니 성이 있으면 곧 글자가 있으니 글자는 곧 성이라(氣者天地母也。聲與氣同時而出。有聲卽有字。字又聲之子也。)”라고 하였으니 이 글의 첫머리는 결국 류씨의 『운회』 서와 비슷한 견해를 말한 것이다.

근심하고(吾東方禮樂文章。侷擬華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라고 하여 조선의 문화적 자주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증보문헌비고』(권245) <악고(樂考)>에

“예로부터 중국 안의 각 지방은 풍토가 매우 다르나 아직까지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글자를 만든 일이 없고, 오직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 등의 무리들만이 각각 제 글자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모두 오랑캐의 일일 뿐입니다.(自古九州之內 風土殊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⁰⁾

『동각잡기』에는 “세종이, 다른 여러 나라는 자기 국어로 된 문자가 있어 그 나라의 말을 기록하건만 유독 우리나라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본국의 음운(音韻)이 비록 화어(華語)와 다르나 아음(牙音)·설음(舌音)·순음(唇音)·치음(齒音)·후음(喉音)의 청탁(淸濁)과 고저가 중국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어제인 언문 자모 28자를 창제하였다.(世宗而列國皆有國音之文。以記基國之語。而獨我國無之。本國雖與華語有殊。而基牙舌唇齒喉。淸濁。高下。未皆不與中國同。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 동각잡기(東閣雜記) 상)라 하고 『증보문헌비고』에는 이상의 여러나라의

10) 조익(趙翼)의 『포저선생집(蒲渚先生集)』(권6) <삼경자음(三經字音)> 서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언어는 중국과 달라서 문자나 성음이 자연 모두 같지 않으니, 이는 풍기와 토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그 성음에는 본래 윤후에 다른 법칙이 있게 마련이니, 같지 않은 성음을 같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법칙이 있는 것은 또한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我國言語與中國異 文字聲音自皆不同 此風氣土俗之使然也 然其聲音本有論類之則 其不同者雖不可同 其有則者亦不可相亂也.)”

문자는 “입금이 여러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방음을 기록하기 위해 문자를 제정하는데 오직 우리나라에만 문자가 없어 자모 28자를 제정하여 이름하여 언문이라한다.(上以爲諸國各製文字。以記基國之方言。獨我國無之。遂製字母二十八字。各曰諺文)”라고 하였다.

지리를 만들면서 특히 만주 지역의 여진 몽고 지명을 한자로 표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몽고와 여진과의 교류를 통해 중화를 둘러싼 이족들 모두 자국의 문자를 갖고 있는데 대한 자의식의 결과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위백규(魏伯珪)의 『존재집(存齊集)』 권13, <잡저>의 ‘격물설’에서와 정약용(丁若鏞)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발죽란물명고(跋竹欄物名攷)』 등에서 언어 풍토설에 대한 논의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져 온다.¹¹⁾

최만리 등의 <언문 사용 반대 상소문>¹²⁾에도 “구주로 나뉜 중국 내에 기후나 지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아직 방언에 다른 글자를 만든 일이 없고, 오직 몽골, 서하, 일본, 서번과 같은 무리들만이 각각 제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모두 오랑캐들의 일이라 이치를 갖추지 못한 것뿐이다.(自古九

11) 윤행입(尹行愆), 『석제응제록(碩齊應製錄)』에서도 “중국의 음은 곧 하나의 문자에 해당되어서, 말은 간결하면서도 뜻은 상세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성스러운 지혜를 움직이시어 운서를 새로 간행하시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음을 변별하시되 권점을 더하고 언문으로 주를 달아,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릇 향어를 금지함을 선포하고 한음의 학문을 드날리시어 경서의 음석을 고치고, 치우치고 어그러진 누속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만 전하의 한 마디 호령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若中國之音 便一文字 而言簡而意詳 自可易解而不難學者耶 方金聖智默運 韻書新刊 辨別華東之音 而加之以圈 注之以諺 則雖使至愚至蠢之人 一寓目而可以瞭如矣 夫申明鄉語之禁 闡揚漢音之學 改經書之音釋 而變偏壤之俚俗者 特殿下一號令間事耳)”

12) 상소를 올린 시점이 이미 한글을 창제 된 이후이기 때문에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 상소를 올린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언문 창제에 대한 반대’가 아닌 ‘언문 사용 반대 상소문’ 특히 운서 제작에 대한 반대이다.

州之內。風土雖殊。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惟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各基有字。是皆夷狄事耳。無足道者)”라고 하였다. 최만리의 시각은 당시 세종과 분명히 상반된 견해였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만리 등이 반대의 한 이유를 이루는 바가 세종의 제작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자주적 국가 의식에 기반한 언어정책이었음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II. 풍토설과 성운학

먼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집현전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정인지는『훈민정음』 해례 정인지의 서문 등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자.

①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자도 있는 법이다. 그러한 까닭에 옛사람들은 소리에 따라 글자(체계)를 만들고 이로써 만물의 뜻을 능히 꿰뚫고 삼재의 도를 실었으니, 후세의 사람들이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는 서로 다르고, 소리의 기운 또한 그에 따라 달라진다.(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入) 聲氣亦隨而異焉.)”

② 소옹의 『황극경세서』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에 나타나는 풍토설에 따른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황극경세서>에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으며,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같고 다름이 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이 다르면 사람의 발음도 달라지는 것이다.(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

풍토설에 따라 방언의 차이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의 내용이 『황극경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곧 풍토설과 관련된 말을 베껴 쓰기로 『훈민정음』에서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강신항(1987:24)은 받아드리고 있다.

③ 『동국정운』, 신숙주(申叔舟) 서문

“대저 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 지방의 이와 입술의 움직임과 서북 지방의 불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이어서, 드디어 문서로써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으로는 같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안팎 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라! (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蓋以地勢別而風氣殊 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唇 西北之頰喉是已 遂使文軌雖通 聲音不同焉 吾東方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동국정운』, 신숙주(申叔舟) 서문에는 풍토에 따라 소리가 달라져 ① 자모의 변¹³⁾, ② 칠음의 변¹⁴⁾, ③ 청탁의 변, ④ 사성의 변¹⁵⁾이 생겨남에 따라

13) 최세진이 『언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홍무정운』 이후의 한자음을 보면 ‘知’는 ‘照[지]’에 합병되고, ‘微’은 ‘穿[치]’에 합병되고, ‘微’은 ‘壯[찌]’에 합병되고, ‘敷’는 ‘非[빙]’에 합병되었다.” 그러므로, 『사성통해』에서도 또한 이에 따라 다섯 자모

조선의 한자음을 짓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②의 『황극경세서』(『성리대전』 권8)에서 “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으며,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 같고 다름이 있다. 그래서 지리적 환경이 다르면 사람의 발음도 달라지는 것이다.(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謂風土殊而呼吸異故也)”라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④ 『홍무정훈역훈』

이와 같은 내용이 『홍무정훈역훈』에도

(知·徵·孃·敷)를 제거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발음에서는 설상음을 말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병합하여 폐지한 것이다.

- 14) 최세진이 『언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魚[ㅇ]음은 곧 疑[ㅇ]음과 같고, 孃[ㄴ]음은 곧 泥[ㄴ]음과 같고, 么[ㅇ]음은 곧 影[ㅇ]음과 같고, 敷[ㅍ]음은 非[ㅍ]음과 같으니, 둘로 나누면 안 되는데 『운회』에서는 이것을 나누어 놓았다. 몽고운에서는 ‘魚[ㅇ]자와 疑[ㅇ]자는 음이 비록 같지만 그 몽고 글자는 다르기 때문이다. 泥[ㄴ]와 孃[ㄴ], 么[ㅇ]와 影[ㅇ], 非[ㅍ]와 敷[ㅍ] 또한 같다. 그러나 다만 泥[ㄴ]와 孃[ㄴ]에 대해서는 달리 논해야 한다. 결코 같이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알 수 없다.
- 15) 최세진의 『사성통해』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 “국음은 무릇 평음과 측음이 있나니, 평음은 슬프면서도 편안하고, 측음은 돌이 있나니 ‘齒’자의 발음처럼 거세고 들이는 것이 ‘位’자의 발음처럼 곧고 높은 것이 있다. 슬프면서도 편안한 것은 평성이자, 거세고 들리는 것은 (상성이며), 곧고 높은 것은 거성과 입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時俗의 말에 평성은 점이 없으며 상성은 점이 돌이고 거성과 입성은 점이 하나이다. 이제 反譯(=音注)에서 한자 아래 오른쪽의 諺音은 아울러 우리 고유어의 고저에 의거하여 점을 가하였다. 단지 『通攷』안의 漢音은 글자 옆의 점이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그 소리의 고저는 조선어와 중국어가 같지 않음이 있다. 자세한 것은 방점조를 보라.(國音 凡本國語音 有平有仄 平音哀而安 仄音有二焉 有厲有舉 如齒字之呼者 有直而高 如位字之呼者 哀而安者 爲平聲 厲而舉者(爲上聲), 直而高者 爲去聲 爲入聲 故國俗言語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國(‘聲’의 오자-인용자)入聲一點 今之反譯 漢字下在左 諺音 並依國語高低 而加點焉 但通攷內漢音字旁之點 雖與此同 而其聲之高低 則鄉漢有不同焉 詳見旁點條.)”라고 하여 사성의 변을 설명하고 있다.

“대개 사방의 풍토가 같지 못 하고 기도 또한 그기에 따르는 바, 소리는 기에서 생기는 것인지라, 이른바 사성과 칠음이 지방에 따라서 편의함을 달리 하거늘(盖四方風土不同。而氣亦從之。聲生於氣者也。故所謂四聲七音隨方而異宜。)”

이라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의 풍토설 관련 내용이 단순히 ②~④의 중국의 풍토설을 단순히 베껴 쓰기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위 말하는 풍토설이 단순히 소용의 『황극경세서』의 한 구절의 베껴 쓰기의 결과 『훈민정음』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다음에서 제시하는 1) 자국문자의 창제의 당위성, 2) 예의에서 해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운도가 변화된 사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 3) 방음과 이어에 대한 관찰과 동시에 27자의 제한적 음소를 주장하는 당위성을 입증하는 수단이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1. 『훈민정음』과 『동국정운』 등 운서와의 관계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정인지의 서문에 나타나는 풍토설에 대한 내용은 그 보다 먼저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나타난다. 곧 최만리 등의 반대상소에도 “구주로 나뉜 중국 내에 기후나 지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아직 방언에 다른 글자를 만든 일이 없고, 오직 몽골, 서하, 일본, 서번과 같은 무리들만이 각각 제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모두 오랑캐들의 일이라 이치를 갖추지 못한 것 뿐이다.(自古九州之內。風土雖殊。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惟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各基有字。是皆夷狄事耳。無足道者”, 최만리의 <반대상소문>)”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국정운』의 신숙주의 서문에 “대저 음(音)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고, 사람이 다르고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고 같음이 있나니, 대개 지세가 다름으로써 풍습과 기질이 다르며, 풍습과 기질이 다름으로써 호흡하는 것이 다르니, 동남 지방의 이와 입술의 움직임과 서북지방의 볼과 목구멍의 움직임이 이런 것 이어서, 드디어 글 뜻으로는 비록 통할지라도 성음으로는 같지 않게 된다. 우리 나라는 안팎 강산이 자작으로 한 구역이 되어 풍습과 기질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호흡이 어찌 중국음과 서로 합치될 것이라.”라고 하였다. 이어서 “한자음을 나타내는 운도에서도 횡난에 사성을 제대로 나열하지 못하고 종란에도 7음을 옳게 표시하지 못하여, 이들 둘의 결합으로 나타내는 한자음이 제대로 표시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순경음과 순중음의 차례가 바뀌는 등 성음의 변함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국정운』에서 말하는 오성과 오음계의 대응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곧 ‘순음-우’, ‘후-궁’으로 『훈민정음』의 오음계가 중국의 운서와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성모자와 중성의 배열순서도 『훈민정음』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나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舉要)』 등 여러 운도와 운서에서도 성운을 음계와 결부하여 설명하는 방식은 널리 사용되었다. 『홍무정운』 서에서도 “사람이 생겨나면 소리가 있고 소리가 나면 7음이 갖추어지니 소위 7음이란 아, 설, 순, 치, 후와 반설, 반치가 이것이요, 전문가가 이를 살펴서 청, 탁 계열로 나누어, 음악의 각, 치, 궁, 상, 우음으로 결부하고 반상음과 반설음을 반치음과 반치음으로 결부하기에 이르러 천하의 음이 모두 이에 포함되게 되었으니”¹⁶⁾라고 하여 오음을 음악의 음

16) “人之生也 則有聲 聲出而七音具焉 所謂七音字 牙舌脣齒喉及半齒各半是也, 智者察知之 分其清濁之倫 定爲角徵宮商羽, 以至於半商半齒, 而天下之音 盡在是矣” (『홍무정운 서』)

계에 결부하여 설명한다. 그런데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14엽 뒷면 3항과 7항 하단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脣’음과 ‘喉’음의 음계는 [표-3]에서와 같이 『홍무정운』, 『고금운회거요』 등 중국 운서와 서로 차이를 보인다. 『훈민정음』 해례에서 순음의 음계는 ‘宮’이고 후음의 음계는 ‘羽’인데 중국 운서와 음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사자는 『훈민정음』의 음계 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남긴 것이다. 대계 송대의 남방음 계열의 운서와 북방음 계열의 운서에서 음계의 배치가 완전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점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당시 필사자는 성운학과 악학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훈민정음』의 자모의 원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자로 보인다.

표1. 오음의 음계 대비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훈민정음	각	치	궁	상	우	치	상
홍무정운	각	치	우	상	궁	치	상
홍무정운역훈	각	치	우	상	궁	치	상
동국정운	각	치	우	상	궁	치	상
필사	각	치	우	상	궁	치	상

2. 자모의 배열순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의 14엽 뒷면 상단과 하단에는 『훈민정음』의 오음의 음계가 중국의 운서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오음을 오행, 사시, 음계, 방위에 배속시켜 “初聲之中 自有陰陽五行方位之數也”라고 하였는데 이를 요약한 오음도는 다음의 도표와 같다.

표2. 『훈민정음』의 오음과 오행, 사시, 음계, 방위.

오음	오행	사시	음계	방위
목구멍소리(喉)	水	冬	羽	北
어금니소리(牙)	木	春	角	東
혓소리(舌)	火	夏	徵	南
잇소리(齒)	金	秋	商	西
입술소리(脣)	土	季夏	宮	中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오음의 음계 [표-4]과 같다. 곧 ‘牙, 舌, 脣, 齒, 喉’음은 ‘角, 徵, 宮, 商, 羽’으로 각각 대응된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음계 ‘우(羽)’에 대해 “목구멍은 입안 깊은 곳에 있고 젖어 있으니 (오행으로 보면) 수(水)이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공허하게 통하여 물의 허명(虛明)하고 두루 흐름과 같으니, 철로는 겨울(冬)이요 음으로는 우(羽)이다.” 또 ‘궁(宮)’에 대해서는 “입술은 모나고 다물어지니 (오행으로 보면) 토(土)에 해당한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가 머금고 넓은 것은, 땅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큼과 같고 철로는 늦여름(季夏)이고 음으로는 궁(宮)이다.” 라고하여 ‘脣’음과 대응되는 음계 ‘宮’이고 ‘喉’음과 대응되는 음계가 ‘羽’이다. 이 두가의 대응 관계가 중원한음을 정리한 『홍무정운』과는 서로 차이가 난다. [표-3]에서처럼 『홍무정운』에서는 ‘脣’음과 대응되는 음계가 ‘羽’이고 ‘喉’음과 대응되는 음계가 ‘宮’이다. 14엽 뒷면 5항에서 보이는 행간 필사의 내용은 ‘脣-羽’로 6항에는 ‘喉-宮’로 새롭게 배치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훈민정음』의 음계 배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중국의 『원화운보(元和韻譜)』와 신공(神珙)의 견해인 “喉音脣宮土”와 심약(沈約)의 『사성운보(四聲韻譜)』와 신공(神珙)의 견해인 “皆以脣爲羽音”에 근거하여 하여 후음은 ‘宮’으로 순음은 ‘羽’로 음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아마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원화운보(元和韻譜)』 계열인 『홍무정

런데 오음의 순서는 중국운서에서도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¹⁸⁾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오음계의 배치와 한자음의 표준음 이해를 위해 만든 『홍무정운역훈』의 오음계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 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입술소리(脣)-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운』 계열의 중국의 운서에는 ‘입술소리(脣)-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운학자들 간에 논란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 “그러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또한 따라서 다른 즉”이라 하였으며, 『동국정운』 세문에서도 “대저 음에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게 따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풍기가 틀리고 풍기가 다르면 호흡이 다르니”라고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행간 필사 내용과 같은 반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박성원의 『화음정음통석고』의 서에는

표3. 오음과 오성의 배치도

오성	牙	舌	脣	齒	喉
기본자	ㄱ	ㄴ	ㅇ	ㅇ	ㅇ
오행	木	火	土	金	水
오음	角	徵	宮	商	羽

18) 守溫의 30자모 순음→설음→이음→치음→후음
 廣韻의 辯字五音法 순음→설음→치음→이음→후음
 韻鏡 순음→설음→이음→치음→후음
 歸三十六字母例 설두음→정치음→치상음→이음→후음→설상음→순음
 玉篇 후성→설성→치성→순성→아성
 切韻指掌圖 이음→설음→순음→치음→후음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처음부터 아, 설, 순, 치, 후 등 성모의 음계와 합벽 등의 운모의 발음의 묘에 밝지 못해서 오음의 음계가 뒤섞였다. 그래서 궁음이 혹 우음이 되고 상음이 혹 치음이 되어 아직도 일정한 음운이 없으니 이것은 실로 우리나라에서 언문이 둘로 갈라지고(일치하지 않음) 또 뜻에만 중점을 두고 음을 소홀히 한 결과이다.(至於我東, 則初不明其牙舌脣齒喉閣關出聲之妙。故五音相混, 宮或爲羽, 商或爲齒, 尙無一定之音韻, 此實我東諺文爲二, 務於義而忽於音之致也。), 『화음정음통석고』 서문.

라고 하여 『훈민정음』 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훈민정음』 해례본과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음양오행의 동아시아의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의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脣-宮’의 배합과 ‘喉-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 지적하였다. 곧 “元和韻譜及神珙¹⁹⁾ 喉音爲宮土”라고 하여 ‘喉-宮’의 배합이 옳으며, 이어서 “韻譜及沈約神珙 皆以脣爲羽音”이라고 하여 ‘脣-羽’의 배합이 옳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의 배합 원리가 심약의 『원화운보』²⁰⁾ <오음지도(五音之圖)>의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

19) 神珙은 당나라의 승려인데 심약과 元和韻譜(處忠 撰)에 대해서 언급하고, 거기에 나오는 四聲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뒤이어 신공이 만들었다는 四聲五音九弄反紐圖의 도판이 두 장 들어 있는데 그 중 五音之圖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20) 元和는 당(唐) 헌종(憲宗, 806~820)의 연호이다. 元和韻譜라는 책은 전하지 않으며 책명만 다른 책에 인용되어 전한다. 그 책이 다름 아닌 《大廣益會玉篇》(1013년)이다. 이 책은 양(梁)나라의 고야왕(顧野王)이 지은 《玉篇》(543년)을, 당(唐)의 손강(孫強)이 보충한 것(674년)을, 북송(北宋)의 진종(眞宗) 때에 진팽년(陳彭年)·오예(吳銳)·구옹(邱雍) 등이 어휘를 대거 추가하여 증보한 책이다. 우리가 흔히 ‘옥편’으로 줄여 부르는 책이다. 이 책은 조선에서도 1414년에 북각본이 간행되는 등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옥편은 이후에 획순 한자음 사전의 대명사가 되어 《全韻玉篇》(1819년) 등의 여러 가지 玉篇류가 저술되기도 하였다.

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口撮聚(脣重, 脣輕)”로 기술한 내용과 다른 점을 지적한 것인데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께서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거요』를 기준으로 오음과 오성을 결정했던 결과이다.

표4. 오성과 오음

五音-五聲	출전	참고
宮-脣, 羽-喉	切韻指掌圖 중 五音五聲 辨字母次第例, 四聲等子, 夢溪筆談, 古今韻會舉要	훈민정음 제자해
宮-喉, 羽-脣	切韻指掌圖 중 辨五音例, 玉篇의 廣韻指南, 洪武正韻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도표와 같다.

이를 신경준과 비교하면 신경준의 오음 배열 순서는 역대 어느 것보다 동일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다. 이 순서는 조음기관의 순서로 기류의 흐름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그가 조음 음성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관찰한 결과였다.²¹⁾

둘째, 다음으로 운도는 가로로 <초성배경세수도>의 36자모를 조음점의 순서에 따라 ‘후음-아음-설음-치음-순음-반설음-반치음’의 순서로 배열하고 같은 음계 내부에는 ‘전칭-전탁-차칭-반칭반탁’으로 배열하였다. 세로로는 18성을 4개의 도에 나누어 배열하고, 하나의 운도 안에서 각각의 중성을 이를 핵모음으로 가지는 운들을 가로로 평·상·거·입으로 나누어 배열하였다. 그리고 동일 핵모음을 가지는 음들의 중성에 따라 나누어

21) 이에 대해 신경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이 발음되는 곳을 순서대로 말한다면 목구멍이 맨 처음에 있고 어금니가 목구멍의 밖에 있으며 혀는 어금니의 밖에 있고 이는 혀의 밖에 있으며 입술은 이의 밖에 있으므로 脣을 먼저 하고 다음에 角을, 그 다음에 徵, 그 다음에 商, 그 다음에 羽를 놓게 되는 것이다.”

종으로 배열하였다. 이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전칭-차칭-전탁-불청불탁’의 배열 방식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운서』 번역의 행방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불과 몇 달 뒤인 세종 26(1444)년 2월에 신숙주, 성삼문 등에게 『고금운회거요』의 번역을 명하였는데, 이 사업은 완성되지 못했다. 다만 이를 토대로 하여 세종 29(1447)년에 『동국정운』을 편찬하였다. 곧 『동국정운』의 운목 배열은 『고금운회거요』의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운도의 배열 방식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 26(1444)년 2월 병신 조실록에 보면 세종이 새로 창제한 정음을 가지고 『운회』를 번역시키도록 하명한 사실이 보인다.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 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 대군 이유, 안평 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하므로 상을 거둬 내려 주고 공역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塏, 敦寧府主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揉, 安平大君瑑, 掌其事, 皆稟審斷。”, 『세종실록』 세종 26(1444)년, 2월 16 일.)”

이와 같이 세종께서 『고금운회』를 번역하도록 하명한 것으로 보아서 언문 28자의 창제는 계해 겨울에 완료되었음은 의심 없는 사실이며, 이와 동시에 한자어 표기는 당시 핵심적인 당면 과제였을 것이다. 이 『운회』의 번역 과정은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문 중에도 들어 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판각 장인) 수십 인을 모아 각본 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에 어찌하겠습니까?”²²⁾

세종이 『운회』번역을 명한 직후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린 직접적인 계기는 이 운서 번역 사업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록에 보이는 『운회』란 어떤 운서를 말하는 것인가?

박병채(1983:12) 교수는 세종이 명한 『운회』가 『고금운회거요』가 아닌 이유를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서는 『홍무정운』이라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의 운도 7성과 악물 오성과의 대응(순음(唇音)-궁(宮), 후음(喉音)-우(羽))이 『고금운회거요』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당시 세종이 번역하도록 명한 『운회』는 『고금운회거요』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왜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일까?

유창균(1969:162) 교수는 『고금운회거요』 사업이 중단되고 이어서 『동국정운』의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고금운회거요』의 음역본이 훈민정음의 음운체계로 발전적으로 개편한 결과가 『동국정운』이라는 논의이다.

문제는 왜 『운회』 곧 『고금운회거요』의 음역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한 단 한마디의 기록도 남아 있지 않는가? 여기서 『운회』가 박병채(1983:12) 교수의 논의처럼 『홍무정운역훈』이었다면 그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22) “今不傳採群議，驟令吏輩十餘人，講習，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附會無稽之產諺文，聚工匠數，十八刻之，劇欲廣布其於天下，後世公議如何。” 『세종실록』세종 26 (1444)년 2월 20일.

23) 박병채, 『홍무정운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3.

표5. 사업 관여자

	운회 언역	훈정 해례	동국 정운	홍무 역훈	용비 언역	직해 동자
정인지		○				
최 향	○	○	○		○	
박팽년	○	○	○		○	
신숙주	○	○	○	○	○	○
이현로	○	○	○		○	
이 개	○	○	○		○	
강희안	○	○	○		○	
성삼문	○	○	○	○	○	○
신영손				○		○
손수산				○		○
조변안			○	○		○
김 증			○	○		○
동 궁	○					
진양대군	○			○		
안평대군	○					
계양군				○		○

『운회』 사업에 가담한 사람과 『홍무정운역훈』 사업에 가담한 사람은 신숙주와 성삼문을 제외하면 전혀 다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근거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곧 훈민정음 예의는 세종이 『고금운회거요』의 운서를 참조하여 만들었다가 집현전 학사와 더불어 해례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신진학사들은 명나라 홍정운서 『홍무정운』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됨으로써 『운회』 사업이 자연 중단되는 동시에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인간 사업으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논증하기 위한 첫째 근거가 소위 말하는 풍토설이다. 지역마다 7음의 대응이나 청탁의 대응, 사성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설을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 『동국정운』의 서문, 『홍무정운』 서문

등에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둘째, 『운회』 사업을 선포한 지 불과 두 달 이후 최세진 등의 강력한 반대 상소가 조정에 제기 되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운회』 사업을 포기하는 명분은 되지 않았으나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훈민정음』 해례본과 『홍무정운』의 오음계의 배치는 차이가 있다. 곧 『고금운회거요』 계열의 운도를 기준으로 만든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입술소리(脣)-궁(宮)’, ‘목구멍소리(喉)-우(羽)’의 오음계 배치로 되었지만 『홍무정운』계열의 운서에는 ‘입술소리(脣)-우(羽)’, ‘목구멍소리(喉)-궁(宮)’로 되어 있다.²⁴⁾ 이러한 사실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도 운도의 통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정인지의 서문에서도 이러한 논란과 논쟁을 막기 위해 “그러나 풍토가 구별되고 성기 또한 따라서 다른 즉”이라 하였으며, 『동국정운』 서문에서도 “대저 음에 같고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사람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다름이 있는 것 아니요, 지방이 같고 다름이 있는 것이니, 대개 지세가 다르면 풍기가 틀리고 풍기가 다르면 호흡이 다르니”라고 대응했던 것이다. 물론 중국의 운서 간에도 오음계의 배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의 오음계 배치가 『훈민정음』해례본은 『홍무정운역훈』, 『사성통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었다. 곧 음양오행의 동아시아의 사상 체계로 만든 훈민정음의 제자의 원리를 밝힌 제자해에서 제시한 ‘순(脣)-궁(宮)’의 배합과 ‘후(喉)-우(羽)’의 배합이 문제가 있음을 유희도 『언문지』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²⁵⁾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24) 이상규, 「잔엽 상주본 『훈민정음』」, 『한글』 제298집, 한글학회, 2012.

25) 유희도의 『언문지』(1824)년에서도 “또한 후(喉)음을 우(羽)라하고, 순(脣)음을 궁(宮)이라 하였으니,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又以喉爲羽, 以脣爲宮, 皆不通於理)”라고 하여 『고금운회』의 오음계 배치를 비판하고 있다.

행간 필사 기록에도 『훈민정음』해례의 오음계 배치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곧 오음, 오성, 오계, 오시뿐만 아니라 특히 율려와 성음의 이치를 성운학과 통합한 곧 전체를 하나의 원리로 일관하는 통합적 구조주의의 원리에서 오성과 오음(또는 칠성과 칠음)의 배합 원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께서는 원나라 북방음이 반영된 『고금운회거요』를 기준으로 오음과 오성을 결정했던 결과이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태종에서 세종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고금운회거요』를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세종에게는 매우 친숙한 운서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 이후 명나라에서는 심약의 『원화운보』를 기준으로 한 『홍무정운』의 운도에서 이들 배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집현전 학사들 사이에 이 운도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⁶⁾ 따라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운회』번역 사업이 중단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동국정운』사업과 함께 명나라 흠정 운서인 『홍무정운』 번역 사업으로 한자음 표준화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실록의 예의 이후의 변개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중국 성운학을 토대로 하여 운도를 중심으로 하여 횡으로 오음(오성)을 종으로 청탁을 근거로 하여 언문 28자를 제정하였다. 우리말 표기뿐만 아니라 조선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표기를 위해 제자해에서 초성 제자와 소리체계와 전탁과 병서 규정과 합자해를 설치함으로써 우리말 표기에서 우리말 한자음 및 한어음표기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의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분

26) 심약의 『원화운보』〈오음지도(五音之圖)〉의 “宮 舌居中(喉音), 角 舌縮却(牙音), 徵 舌拄齒(舌頭, 舌上), 商 口開張(齒頭, 正齒), 羽 口撮聚(脣重, 脣輕)”로 기술한 내용과 다른 점을 집현전의 신진학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명한 변개가 있었다.

첫째, 운도의 중도에서 청탁의 배열이 예의에서와 해례본에서 다음과 같은 배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²⁷⁾ 예의에 청탁(淸濁) 구분에 따른 글자의 배열이 ‘전청(ㄱ)-전탁(ㄱ)-차청(ㅋ)-불청불탁(ㅇ)’의 순서인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전청(ㄱ)-차청(ㅋ)-전탁(ㄱ)-불청불탁(ㅇ)’의 순서로 바뀌게 된다.²⁸⁾ 변개된 부분의 일부인데 이 문제는 단순한 변개가 아니라 예의에서 한자음 표기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둘째, 초성 제자 원리를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초성의 배열순서가 예의와 달라졌다. 예의에서는 ‘아→설→순→치→후’의 순서였는데 해례본 제자해에서는 ‘후→아→설→치→순’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성문(出聲之門)인 목구멍에서 입(聲之出口)까지 조음위치(point of articulation)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하였다. 이 점은 당시 집현전 학사들이 현대 음성학적 조음의 원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또한 세종이 창제한 초성 17자의 배열 구도가 해례에 와서 약간의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예의에서 해례본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개와 첨삭이 이루어진다. 우리말 표기와 한자음 표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의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君, 虵, 快, 業’에 해당하는 음가 표기는 언해본에서는 ‘군, 꺄, ·뽕, ·업’이지만 『동국정운』

27) “又以聲音淸濁而言之。ㄱㄴㄷㅂㅅㅈㅇ。爲全淸。ㅋㅌㅍㅊㅎㅇ。爲次淸。ㄱㄴㄷㅂㅅㅈㅇㅇ。爲全濁。ㅇㄴㅇㅇㄴㅇ。爲不清不濁。ㄴㅇㅇ。其聲最不厲。”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

28) 임흥빈, 『한글은 누가 만들었나』, 이병근선생퇴임기념논문집 『국어학논총』, 태학사, 1378쪽, 2006.

29) ‘전청-차청-전탁-불청불탁’으로 배열하던 순서를 버리고, 소강철의 <초성경세수도>에서 배열한 순서인 ‘전청(ㄱ)-차청(ㅋ)-전탁(ㄱ)-불청불탁(ㅇ)’의 순서로 바뀌었다.

한자음 표기가 확정되기 이전의 해례본에서는 ‘군, 꺾, ·쾌, ·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해례본보다 3년 앞에 나온 예의의 한자음 표기는 언해본과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현대어로 해석할 때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언해본의 음가 표기인 ‘군, 꺾, ·쾌, ·업’으로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넷째, 예의에서 밝힌 언문 28자를 기본으로 하여 합자 방식에 따라서 해례본에 이르면 초성 기본자 17자를 포함하여 39자, 중성은 11자를 포함하여 25자가 보인다. 그러나 해례본에서 초성글자와 중성글자는 아래와 같이 64자의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은 한자음 표기를 위한 문자 운용의 방식의 방편이었다.

① 초성 글자

단일 초성 글자		ㄱ, ㅋ, ㅇ/ㄷ, ㅌ, ㄴ/ㅂ, ㅍ, ㅍ/ㅅ, ㅈ, ㅈ/ㅊ, ㅎ, ㅇ/ㄹ, ㄷ
복합 초성 글자	각자병서	ㄱ, ㄷ, ㅁ, ㅈ, ㅊ, ㅎ, (ㅇ, ㄴ)
	합용병서	ㅁ, ㅂ, ㅅ, ㅈ/ㅊ, ㅌ, ㅈ/ㅊ, ㅈ
	연서	ㅇ, (ㅇ, ㅁ, ㅂ)

② 중성글자

소리체계			글자체계
단모음	·, ㅡ, ㅣ, ㅏ, ㅑ, ㅓ, ㅕ		단일 중성 글자
이중모음	ㅑ, ㅓ, ㅕ, ㅗ	ㅣ계 상향모음	2자 중성
	ㅑ, ㅓ	ㅓ계 상향모음	
	·, ㅡ, ㅓ, ㅕ, ㅗ, ㅑ	ㅣ계 하향모음	
삼중모음	ㅑ, ㅓ, ㅕ, ㅗ	ㅣ계상향→ㅣ계하향	3자 중성
	ㅑ, ㅓ	ㅓ계상향→ㅣ계하향	

『용비어천가』에서 여진어 표기를 위해 ‘^ㅅ’와 같은 문자도 보인다. 해례본의 용자해에서도 고유어의 용례 94개를 들고 있다.³⁰⁾ 이 용자의 예를 보면 한글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의 표기나 외래어 표기보다는 고유어의 표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언류에서 고유어의 어휘만 제시한 것은 한글의 창제 목적이 단순히 한자음 통일을 위한 표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예의에서 밝힌 언문 28자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적 음소였음이 분명하다. 이것은 한글 창제의 목적이 창제 당시에는 우리말 표기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다가 한글은 표음문자로서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방식으로 발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다섯째,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자음의 표기는 『동국정운』이 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 기간 동안 차이를 보인다. 특히 -p, -t, -k 입성운미의 표기가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t’운미인 ‘^ㅅ’을 ‘^ㅅ’으로 표기하였고 ‘-w’ 운미 글자인 ‘^ㅅ’도 ‘^ㅅ’로 ‘-j’ 운미인 ‘^ㅅ’도 ‘^ㅅ’로 표기하여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해례본과 달리 지섭(止攝), 우섭(遇攝), 과섭(果攝), 가섭(假攝)과 해섭(蟹攝)의 ‘-j’ 운미에 ‘^ㅇ’을 표기하고

30) 용자례에서는 단음절 54개와 이음절어 40개 총 94개의 고유 어휘를 표기하는 실제적 용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초성 용례는 34개, 중성 용례 44개, 종성 용례 16로 당시 표기법의 시행안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초성 용례는 예의의 자모 순서에 따라 ‘아-설-순-치-후’의 방식으로 배열하였고 우리말 표기에서 제외될 전탁자 6자와 후음 ‘^ㅇ’가 제외되고 ‘^ㅅ’이 순음 위치에 추가되었다. 중성 용자의 예는 상형자(·- |)와 초출자(ㄱ ㄴ ㄷ ㄹ), 재출자(ㅁ ㅂ ㅅ ㅈ) 순으로 고유어 각 4개씩 중성 11자에 각각 4개의 어휘를 중성 제자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다. 다만 중모음이었던 이자합용 14자 가운데 동출합용(과, 파, 거, 꺾) 4자와 이자상합합용자 10자(기, 니, 비, 미, 기, 꺾, 피, 비, 꺾, 꺾)와 삼자 상합합용 4자(내, 세, 꺾, 꺾)의 용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종성 용례는 16개 어휘의 예를 밝혔는데 예의의 ‘^ㅅ’ 규정과 달리 해례의 ‘^ㅅ’ 규정(八終聲可足用也) 규정에 따른 ‘^ㄱ, ^ㅇ, ^ㄷ, ^ㄴ, ^ㄷ, ^ㅁ, ^ㅅ, ^ㄹ’ 순으로 각 2개의 용례를 밝혔다. 결국 고유어의 사용 예만 94개를 들고 있다.

진섭(臻攝)과 산섭(山攝)의 ‘-t’운미인 경우 ‘-ㄷㅇ’을 표기하여 입성운미를 3성 체계에 따라 표기하였다. 바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표기 방식은 예의에서 확장된 연구 결과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언문 28자 창제 이후 한 음절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음절 표기 의식에 대한 상당한 변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성과 정음의 의식으로 우리말을 포함한 한자음 표기 방식으로 정착되면서 훈민정음(정음)이라는 의식으로 굳어진 것이다.³¹⁾

5. 방언이어만불동(方言俚語萬不同)

『훈민정음』 해례본 합자해 곁에 “방언과 이어가 모두 다르고, 소리는 있으나 문자가 없어(方言俚語萬不同 有聲無字書難通)”라고 하여 중국에 대한 우리음으로서 방언이든지 우리나라 내부로서의 방언이든지 모두 소리는 있으나 문자가 없다는 말이다.

곧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외에서의 방언과 이어에 대해 어떻게 받아드리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먼저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에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가히 중화(華夏)에 모의(倣擬, 비교하여 건줄 만 함)되나 그러나 방언과 이어(俚語, 우리말)가 이와 더불어 서로 같지 아니 하니 여기서 글 배우는 이의 그 지취(旨趣, 글의 뜻을)가 깨닫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을 다스리는 이가 그 곡절에 통하기 어려움을 병 되이 여기는 배라. (吾東方禮樂文章。倣擬華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吏讀。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用。或澁或窒。非但鄙陋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

31) 이승녕(1976:32~33)교수는 세종 25년 실록 기사와 정인지 서문을 상화 대조하여 세종 사후에 실록을 기록하면서 어렵פות한 기억을 더듬어 추가 기록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不能達其萬一焉。) ”

라고 하였으나 중국방음을 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자 곧 정음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다. 기본 28자를 합자하면 “비록 바람소리 학이 울음 개의 짖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다 가히 쓸 수가 있는지라.(雖風聲鶴唳。鷄鳴狗吠。皆可得而書矣。)”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적으로 방음에 대한 처리를 『훈민정음』 합자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一가 ㅣ소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말에 소용이 없고 아동의 말이나 변야(邊野)의 말에 혹 있나니 마땅히 두 자를 합하여 쓸 것으로 기 기의 유와 같은 것인 바 그 세로된 것을 먼저하고 가로된 것을 나중에 함이 다른 것과 다르니라.(·一起ㅣ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邊野之語。或有之。當合二字而用。如기기之類。³²⁾ 其先。縱後橫。與他不同。)

아동의 말과 변두리 말 곧 사회 계층적 세대 차이에 대한 언어 차이와 지역적 분포에 따른 언어 차이를 모두 다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만 기본자 28자 이외의 방음은 모두 합자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적 음소를 고수한 것이다.

훈민정음은 풍토설에 따라 다양한 변이음을 다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

32) 기기之類: 중세국어에 [jɨ][ji]와 같은 중모음이 있었음을 설명한 것임. 즉·와 ㅣ모음과 결합된 중모음은 ㅣ모음이 이들 모음의 뒤에 와서 ㄱ·기등과 같이 되고, ㅣ모음이 앞에 오는 중모음은 ㅈ·ㅊ·ㅌ 등인데·와 ㅡ모음의 경우에도 ㅣ모음이 앞에 올 수 있음을 설명한 것임. 여기의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 편찬자들이 얼마나 세밀히 중세국어의 음성을 관찰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대 영남방언에서는 ‘여물다(熟)’, ‘야물다(硬)’가 변별되듯이 [*yɔ]가 잔존해 있으며, 충청방언에서 ‘영:감’이 ‘왕:감’으로 장모음이 고모음화한 변이형들이 확인된다.

동시에 소통 문자는 28자로 제한한 결과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에서 밝힌 “사방의 풍토가 각기 구별되어 성기가 또한 이에 따라서 다르나니, 대개 외국의 말에 그 소리는 있어도 이 소리를 적을 만한 문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서 통용하게 되나니, 이 형편은 마치 속담에 이른바 예조(모난 자루)와 원조(둥근 구멍)가 서로 합할 수 없다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 假中國之字以通다。(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蓋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其用。是猶柄鑿之鉏鋤也。)”라는 말이 단순히 『황극경세서』의 내용의 역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풍토설에 기반하여 1) 자국 문자 창제의 당위성, 2) 예의에서 해례로 옮겨가는 동안 운도의 체계적 변화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3) 방언과 이음에 대한 인식으로 아동어와의 차이, 곧 세대 간의 언어차이와 지역 간의 언어차이를 인식하여 다양한 음소를 제정할 있었지만 28자 제한적 음소 문자로 완결된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참고문헌】

- 김슬옹,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2012.
- 박병채, 『홍무정음역훈의 신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3.
- 안병희, 『숙종의 「훈민정음후서」』,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114.
- _____, 『중세국어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집, 1979.
- _____, 『훈민정음 이본』, 『진단학보』 42집, 1976.
- _____, 『훈민정음 해례본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1986.
- _____,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복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1997.
- _____,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
- _____,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2.
- _____,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상규, 『Hangeul, The Greatest Letters』, 『Koreana』 Vol. 21 No. 3, 2007.
- _____,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출처』, “훈민정음 해례본과 학가산 광홍사”, 주제 발표문, pp.21-22, 2014. 참조,
- _____,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邸井書)』 분석』, 『어문논총』 62호, 2014.
- _____, 『잔본 상주본 『훈민정음』』, 『한글』 제298집, 한글학회. 2012.
- _____, 『「세종실록」 분석을 통한 한글 창제 과정의 재검토』, 『한민족어문학회』 제65집, 2013.
- _____, 『「훈민정음」 영인 이본의 권집 분석』, 『어문학』 100호, 한국어문학회, 2009.
- 이상백, 『한글의 기원-훈민정음 해설-』, 통문관, 1957.
- 아이신교로 올라희춘(愛新覺羅 烏拉熙春), 이상규·다키구치케이코 역주, 『명나라 시대 여진인』, 경진출판사, 2014.

Abstract

The anthropogeographical approach to 『Hunminjeongeum』

Lee, Sang-Gyu

In view of the contents so far mentioned, we have noticed that what we confirmed in the preface of 『Hunminjeongeum』 Haerye written by Jeong In-ji, that is,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n every side are distinguished and the energies of sounds differ according to them, there are usually sounds in foreign languages but there are no letters by which we can write those sounds. We consequently borrow the Chinese characters, and it is as the saying goes(a square thing does not fit into a round hole)” does not simply follow the theory of 『Hwanggeukgyeongseseo』.

This article aims to prove that 『Hunminjeongeum』 Haerye written by Jeong In-jim was 1) to justify the invention of letters of Joseon Dynasty, 2) to build up the foundation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systematic change of Undo(the table for arranging the Chinese characters) during the change from ‘Yeeui’ to ‘Haerye’, 3) to be the theoretical framework to justify the reason they created 28 letters in restricted phonemic ones though they could make various phoneme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tional and interregional difference in language.

Key Word : Hunminjeongeum, Hwanggeukgyeongseseo.

이상규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53-950-5117

전자우편 : sglee@knu.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